

돌직구 복음 선포

성경말씀: 행24:14-27

유대인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하였으나 도저히 바울을 당해내지 못함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기가 이단이라는 그 길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니 총독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함
그래서 그는 바울을 구출하고 가이사랴로 내려 보낸 총대장 루시아가 와서 증언할 때까지 연기함(22).
총독에게는 로마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였음.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 하고 로마 시민도 보호해야 함.
오늘은 바울과 벨릭스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우려 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듣고 바르게 결단을 내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돌직구 복음 선포>

벨릭스의 인생역전 기회

재판을 미루었지만 벨릭스에게는 바울에게서 받은 강한 인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바울: 길리기아의 큰 도시 다소 출신, 나면서부터 자유인으로(행22:28) 로마의 시민권자(특권, 군인
470명),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함, 지식인 중의 지식인(유대, 그리스, 로마 문물에 정통함),
그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고소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음. “이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다르구나.”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가?
더욱이 유대 지방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도 그가
증언하는 그 길 즉 기독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들음(24).
벨릭스: 네로의 충신 파라스의 형제, 파라스와 함께 원래 노예였으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해방되었고
파라스의 도움을 받아 음모를 통해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 그 시대에 유대 지방에는
그의 폭정으로 인해 반역과 반란이 매우 많았다. 그는 주동자들을 가차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제사장 요나단이 강도떼에 의해 피살되자 이 일로 인해 유다는 공포에 빠졌고 벨릭스는 이들을
잔인하게 토벌하였다. 자기 형제를 믿고 그가 저지른 만행과 강탈은 도를 넘어서었다. 타키투스의 표현:
“그는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에게 인생역전의 기회가 왔다.
드루실라: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분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녀, 아버지는 행12장에서 사도 야고보
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헤롯 아그립바 1세, 그의 막내 딸, 원래는 시리아의 작은 왕국인
에메사의 왕 아지우스의 왕비, 약 20세의 나이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셋째 아내가 됨,
그녀는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유대교의 믿음을 실행하지는 않음(간음과 탐욕에 빠져 삶). 그녀에
게도 인생역전의 기회가 왔다.

바울의 돌직구 복음 선포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호기심에서 바울의 교육, 철학,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에 대해 듣기 원하였는데 정작 바울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곧바로 복음을 선포함.
총독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말을 듣고자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자기 동포를 위해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다.
이제 바울은 50대 중후반,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배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영웅호걸, 학자, 부자,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지식인, 야만인,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날이 갈수록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이 매우 확실해졌다.
모든 것이 확실한 이 상태에서 이제 세상의 무슨 부귀영화를 구하겠는가?
바울은 벨릭스나 드루실라의 호의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증언하였다.

복음의 핵심 내용: 의, 절제, 심판(25절)

1. 의: 이것은 한 사람의 과거를 다루는 것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율법에 열심이었다. 선행에 열심이었
다.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리라는 자기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의에 대해 선포하였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의이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의로워도, 선해도, 착해도, 부자라도,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 a.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롬3:10).
 - b. 모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롬3:23)
 - c.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롬3:20)
 - d.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롬3:21)
 - e.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심으로써 누구나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후5:27).
 - f.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롬1:16-17).
 - g. 벨릭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즉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이다.
 - h.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의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 i. 여러분은 이 의가 있는가?
2. 절제: 이것은 한 사람의 현재를 다루는 것이다. 극악무도하게 잔인한 이 총독에게 그는 절제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린다. 요염하여 그 시대의 간부로 알려진 그의 부인 드루실라에게 간음을 피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린다. 지금 식으로 하면 오바마에게 가서 “당신 이제 알라를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동성에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견희 회장, 박근혜 대통령, 주변 친구/친척들,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았다. 빈부귀천 신분의 차이가 없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절제해야 한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이다. 엡5:18, 고전7:31
3. 심판: 이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다루는 것이다. 모든 창조물은 설계대로 지어져서 제 구실을 했는지 심판받을 때가 있다. 폐기 처분 혹은 합격, 모든 사람에게는 다가올 심판이 있다(히9:27). 아테네 사람들에게 준 말씀: 행17:30-31, 예수님의 부활, 심판의 증거

벨릭스의 반응

바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증언을 들을 때 가슴이 섬뜩했다. 인생에서 갖은 일을 다 겪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증언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앞에서 몸을 떨었다(25).

이때가 바로 벨릭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의 의를 재는 저울에 놓여 있다. 의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다.

“오늘은 그만 가라. 다음에 적당한 때에 다시 만나자.”(25절)

바로 이 순간 사실 그의 혼은 이미 죽은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하고 반응해야 한다.

사람에게 두 개의 비극이 있을 수 있다.

- a.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마5:4), 마귀가 눈을 가려 앞으로 보지 못함
- b. 두려움을 느끼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

벨릭스의 실수: 그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안 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연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연기가 결국 그를 지옥으로 보내고 말았다.

하나님의 진리와 두려움이 임하면 오늘 결단해야 한다.

- a.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들어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성령님이 마음을 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포착해야 한다. 벨릭스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바울과 야기를 나누었지만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다.
- b. 진리를 듣고 거부하면 점점 더 마음이 딱딱해진다. 파라오의 경우

그러므로 진리를 들으면 곧장 실천해야 한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히3:15; 고후6:2